

청소년 존중 | 청소년 행복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2021. 10. 23.(토)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비전과 핵심가치



미션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



비전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존중

행복

성장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청소년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주도의
활동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협력
경영시스템 구축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발자취

! 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문화상임위원회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토크(TalkTalk)'

안전상임위원회

바닥신호등 설치

! 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카페 증설

안전상임위원회

공용 자전거 활성화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 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교육상임위원회

과학실험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활성화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 방안

안전상임위원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소통

2021.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Contents

1 인사말	08
2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안내	10
3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12
4 2021.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15
5 2021.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26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시장님 본회의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4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청소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20만 청소년의 대표입니다.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대표해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의 제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은 물론, 민주적 참여과정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학업과 병행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될 텐데, 조금 벅차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만큼은 꼭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들이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청소년 의원 여러분의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고양시장 이 재 준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고양시 20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민제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드디어 결실을 맺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1년 동안 고양시 청소년의 대표로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청소년을 위해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을 찾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제안을 하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것은 청소년의원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청소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 민 제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안내



행사 시간표

시간(소요시간)	행사내용
11:00~11:05 (05)	고양시의회 이길용 시의장님 인사말씀
11:05~11:10 (05)	고양시의회 이길용 시의장님 멘토 위촉식
11:10~11:15 (05)	개회선언, 인사말
11:15~11:55 (40)	<p>정책제안발표(상임위원회별) 및 투표</p> <p>교육상임위원회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p> <p>문화상임위원회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p> <p>인권상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p> <p>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p>
11:55~12:35 (40)	<p>의원 5분 자유발언</p> <p>최보근, 김민재의원 고양시청소년의회 인지도·영향력 강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제안</p> <p>김민재의장 고양형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p> <p>김경환, 김경민의원 환경 실태 축제</p> <p>김지연의원 학급자치활동 활성화</p> <p>장예원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 개정</p> <p>차인수의원 고양시 도보 훈장 관련 문제/개선</p>
12:35~12:50 (15)	단체사진, 마무리발언, 산회선언
12:50~13:30 (4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4:30 (60)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과의 만남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고양시청소년의회

고양시청소년의회 추진 배경 및 목적

고양시 조례 제 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결하여
고양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고양시청소년의회 모집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대 상 고양시 청소년(만12세 이상 ~ 만18세 미만)

인 원 22명

지역분포 덕양구3명, 일산동구4명, 일산서구15명

교급분포 중학생7명, 고등학생15명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 현황

연번	일 정	내 용	세부내용
1	6.19.(토)	예비모임 및 의회 OT	- 의회 인터뷰 - 의회 활동안내, 오리엔테이션
2	7.10.(토)	임명장 수여 및 상임위 구성	- 임명장 및 배지 수여 - 1~3대 의회 주요활동 및 정책 브리핑 - 추가 상임위 구성
3	7.24.(토)	멘토 교육 및 정책과제 논의	- 상임위 별 멘토 교육 -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4	8.14.(토)	워크숍	- 상임위 별 세부 전문교육 - 상임위 별 정책 제안 준비 - 국회의원과의 만남
5	8.28.(토)	교류	- 참여기구 교류
6	9.11.(토)	의정활동	- 상임위 별 정책 제안 준비 - 상임위 별 본회의 준비
7	9.25.(토)	시장님 간담회	- 시장님 토크콘서트
8	10.23.(토)	본회의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정책제안 및 5분 발언 등)
9	11.13.(토)	의정보고회	- 의회 의정보고회 - 개별의원 성과보고 - 우수 의원 포상
10	12.11.(토) 11:00~13:00	평가회 및 해단식	- 의회 활동 평가회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해단식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소개

구분	이름	학교	학년	지역	상임위	비고
1	김경민	동패고	2	일산서구	문화	
2	김경환	덕이고	1	일산서구	문화	
3	김민재	저동고	3	일산서구	인권	인권위원장
4	김민제	청심국제고	2	일산서구	운영	의장
5	김재윤	동패고	2	일산서구	인권	간사
6	김지연	백마고	1	일산동구	교육	교육위원장
7	박채야	신일중	1	일산서구	안전	
8	박채웅	동패고	2	일산서구	문화	
9	백준석	중산고	2	일산동구	문화	문화위원장
10	신유지	일산동고	2	일산서구	안전	
11	염지원	일산대진고	1	일산서구	교육	
12	오탈연	백신고	3	일산동구	안전	안전위원장
13	장민수	화수고	2	덕양구	교육	
14	장예원	한수중	3	일산서구	교육	
15	조은재	대송중	2	일산서구	인권	
16	조해원	성사중	1	덕양구	문화	
17	주하린	한수중	3	일산서구	교육	
18	차인수	화수고	2	덕양구	안전	
19	최보근	저동고	3	일산서구	인권	부의장
20	최정빈	대송중	2	일산서구	인권	
21	최지안	대송중	2	일산서구	인권	
22	홍예전	백신고	1	일산동구	안전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멘토 소개

구분	이름	학교	지역	상임위	비고
1	박정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멘토	
2	최재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멘토	



고양시 청소년 정책제안

상임위원회	정책제안
교육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
문화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 환경축제 -
인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안전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정책제안주제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v)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고양 북페이 도서 교환권’ 사용 범위를 참고서·학습지·월간지 등도 포함해주세요.
-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현재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격차는 크게 벌어졌으며 이미 교육부 등의 많은 기관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생긴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교육격차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 북페이’라는 고양시 프로젝트를 발견하였고 이걸 통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양 북페이’를 변형하여 지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 공간이 제한되거나 사용 시간이 줄어들어, 청소년들이 책을 접할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맞는 서적 또는 관심 있는 서적을 구매하거나 읽을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 북페이’ 지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고양 북페이 도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친구야 책방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도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동네 책방과 함께 책 읽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직접 고르는 즐거움을 느끼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는 기획되었습니다.

‘고양 북페이’는 청소년들의 독서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여 사용 범위가 참고서·학습지·월간지 등은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독서 증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목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과의 교육 격차를 완화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 북페이’의 사용 가능 범위를 기존 도서뿐만 아니라 참고서·학습지·월간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양 북페이’는 희망 학교를 선정해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고양 북페이’를 좀 더 확대·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사업 개요

- **목적:** COVID-19로 인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해소
- **프로젝트명:** '우리 또바기로 약속해'
 - ▶ '또바기'라는 단어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책방에서 책을 고르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여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또바기'라는 순우리말이 '또 보기'와 발음이 같아서 '우리가 책방에서 또 보기로 약속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 기간:** 2022. 1월~12월
- **지원 대상:**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 중 필요로 하는 청소년 5,000명
 - ▶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 학교 선정 방식이 아닌 구글 폼 등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

- 세부 제안 내용

1. 독서문화진흥법 제4장 독서 진흥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가지 악조건(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이 도서를 살 여력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주세요.
2. 기존 '고양 북페이'의 지급 대상 및 선정 방법을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구글 폼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고양 북페이' 사용 범위를 참고서·학습지·월간지 등도 포함해주세요.

- 프로젝트 홍보 및 신청

포스터를 제작하여 행복복지센터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 등에 부착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터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신청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블로그 등의 사이버공간에서도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고양 북페이' 지급 및 사용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순차적으로 '고양 북페이' 지급하며, 지급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 규모:**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 총 5,000명에게 인근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양 북페이(도서교환권)를 1인당 15,000원씩 지원하는 것과 홍보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8,500만 원입니다.

- **필요 예산:** 고양 북페이(15,000원) X 지원대상(5,000명) = 75,000,000원

홍보비용(포스터 제작·인쇄 비용, 블로그 등 홍보 비용) 등 = 10,000,000원

기대효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고양 북페이 지급에 대한 기대 효과

-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공기관이 지원과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그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적을 구매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주제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 환경축제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청소년 교육 (v)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 및 환경보호 활동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 축제' 제안
- 환경문제를 기존의 고쳐바뀐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전달
- 워드 코로나 시대 혹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 거리를 두고 실외 축제 개최 방안 모색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1. 제안배경

- 환경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기존의 전달 방식은 그저 잠시동안 경각심을 지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 이러한 문제로 머리로 생각을 하나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에는 다다르지 못하여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의 방식이 다다르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함.
- 참여를 통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참여 활동이 부족함

2. 현황

(1) 지구의 날 축제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바가 있다.

(2) 지구환경축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되어지는 행사.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담은 축제를 통하여 기존의 경각심만을 심어주던 방식과는 다르게 역으로 사람들에게 힐링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전달하고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함.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전반적인 내용]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환경 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환경문제를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이다. 나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친환경 작품 경시 대회만 연령 대상을 청소년으로 제한한다.

[프로그램 내용]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넓은 실외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황에 따라서 실내 강당과 같은 장소를 사용 가능함.

- (1) 환경오염의 실체를 다룬 영상 시청(대기, 해양 오염과 같은 관련 영상을 '유튜브' 'EBS' 같은 곳을 통하여 시청)
- (2) 환경물품 제작(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비누제작 프로그램, 대나무 칫솔) 혹여나 비대면으로 축제가 진행시에는 제작 키트를 만들어서 배송할 예정
- (3) 청소년 친환경 작품 전시회, 경시대회 진행(재활용이나 재사용과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한 친환경 작품 경시대회 진행 및 전시회 진행)
- (4)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버리는 대회(앞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나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회를 진행하여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전달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축제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한 점을 토대로 다른 비대면으로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예산은 현재 장소 섭외, 제작 키트, 대회 수상자 상품 지급 등을 토대로 하였을 때 1억원~2억원을 상정하는 바이다. 물론 이 비용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래도시를 지향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고양시의 목표와 부합하며 '꽃 박람회'와 같은 축제와 더불어 고양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는 환경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거나 이러한 축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축제를 추진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업 내용]

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시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선출하여서 봉사 시간을 배부해주고 제작키트와 같은 것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원이 부족할 시에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자원 봉사시에는 더불어 청소년에게는 봉사시간 부여와 생활기록부의 특색활동으로 기재해주는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작품 대회는 '환경 축제' 장소에 전시를 진행하다 추후에는 청소년 수련관, 시청과 같은 장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식을 채택하나 전시는 참가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쓰레기 줍기 대회는 가장 많이 쓰레기 봉투를 채운 사람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여서 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 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고양시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 수련관, 시 내에서의 파급력을 지닌 사람들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 축제' 홍보의 일환으로 SNS에(예: #고양시_환경축제)와 같은 홍보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추천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축제 전과 이후로 개최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다.

기대효과

1.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욱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2. 대규모적으로 진행하는 축제인 만큼 더 폭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 걱정과 불안만을 심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보다 접근하기 쉬운 문제로 만들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직면하고 무관심과 외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작품 전시와 대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참여도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작품 전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좋은 방법을 2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줄 수 있다.
3.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버리는 대회를 통하여서 환경축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으로 생성되는 쓰레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과 동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더욱 대두되어지는 환경 문제에 발맞추어 1차원 적인 교육에 지나지 아니 하였던 기존에 방식을 타파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환경 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제안주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v)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학교폭력중재위원회(가칭)을 설립한다.
- 본 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다.
- 또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학교 내·외부에서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13일 크게 공론화된 마두역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의 재량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화해와 사과를 통한 해결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감성적인 접근이 학폭위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 및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폭위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당하거나 목격한 학교폭력을 고발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이를테면 몇몇 학교에서는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즉 형식적인 익명성으로 인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학교폭력 방관자를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나 방관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익명성을 갖고 고발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푸른나무재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술과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교폭력의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공공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학교폭력중재위원회(가칭)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수사 당국과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역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측면과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학교폭력 미발생 시 (예방에 주력)

- 학교폭력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한다.
- 사이버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 전문 교육자를 통해 형식상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각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감찰한다.
-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출발점은 방관자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 사건 목격 시 대응 방안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실태조사와 달리 실질적 익명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본 기구에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 처리)

- 사건을 담당받아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사, 학부모,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이 필요함)
- 사안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및 심리적 치료 병행을 돕는다.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
- 가해자 및 사건에 대한 자체적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및 경찰과 협조)
-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적절한 처분을 강구해 수사 당국에 권고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합당한 처분이 이뤄졌는지 최종적으로 감시한다.
- 모든 처벌이 끝난 후 가해자에 대한 교화를 돕는다. (교육, 사회 적응 지원 등)

결론적으로 본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폐쇄적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화된 기관에서 관찰하여 처리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 처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 차원의 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도록 한다.

기대효과

- 본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깊고 중대하게 인식하고 다룬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 증가할 것이다.
-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적인 토론 및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정책제안주제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v)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달리하여 피교육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 실효성을 갖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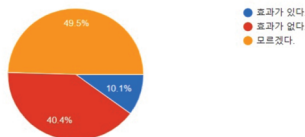
우리는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Zero”와 같은 학교폭력 방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는 최근 누가 벽에 붙어있는 구시대적 표어를 유심히 볼까? 학교에서는 한학기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때마다 접하는 안전교육 영상 시청 시간은 고3에게는 소중한 자습 시간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리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학교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하는 사건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여러 사건 중 가장 가슴 아픈 학교폭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마두 학교폭력’이다.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이 사건 이후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는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제안한다.

안전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사후 조치인 ‘처벌’보다는 학교폭력 발생 이전인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듭했다. 근본적인 문제 인식 및 사고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까닭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였고 범죄화까지는 절차상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원인의 다변화된 것과 맞추어 정책도 변화될 필요성을 인식했다. 다변화된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청소년들이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예방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그나마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은 고양시 관내 청소년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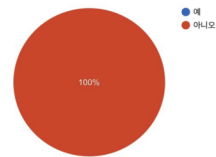
4) 현재 진행중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시청)

응답 109개



2.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3개



학생들이 성찰하여 설문한 결과조차 낮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보다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과 같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감한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청소년의 연령대를 나누어 더욱 현실성이 있고, 현행 교육 정책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교육공무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연령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었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역할극 및 직접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중학교: 청소년기는 친구들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 사이에 의견 공유와 협업 활동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모둠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업 활동에 응용하여 학우들끼리 일정한 결과물을 성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한 학기에 2주 정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협력과 협업 활동으로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일정부분 정서적/성격적인 부분이 자리 잡힌 상태이므로 체험/교류형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의 교육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 제정 법안과 여러 사례, 현황 등 경각심을 느끼고 시간 효율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청소년 지방법원 체험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소년재판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선진국 모델을 참조하여 정책을 고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사업 실행 모델(미국 Massachusetts 교육국, Ontario 지역의 COPA 학교폭력 협의회)

1. 기관 소개_Massachusetts 교육국

-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매사추세츠 주 교육지원청
- 초등 및 중등 수준의 공교육을 책임,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운영
- 주 및 연방 교육자금 분배, 교육부의 학습 표준 구현, 주 전체 표준 시험 감독, 학교 및 지구 모니터링, 지구 및 개인 소집을 통해 모범 사례 공유
- 증거 기반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실습 실시
- 교육법안 통과 및 규제 등 교육관련 모든 사항 운영
- 406개 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유치원에서 12학년 과정까지 100만여 명 학생 관할

□ 질의 및 면담 내용

- 매사추세츠 학교들은 Bullying에 관하여 정부법안에 따라야 함
- 주정부는 최소한의 법안을 계획, 가이드라인 및 권유
- 학교에서는 법안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추어 별도의 규정 운영

- 사회적 정서적 학습 제공
- 학교별 스페셜리스트 반드시 있어야 함(교사 병행 또는 별도 고용은 학교 재량)
- 학교폭력예방의 키워드는 학생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 학생 간 협업 강조
- 하루에 한 번 이상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운영
- 학생 및 가족지원 부서에 집단따돌림 예방 및 중재 분야 포함
- 취약학생 지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 포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체벌이 아닌 정의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환경설정이 중요
- 카운슬러 및 성인참가 하에 피어리더 학생들이 참여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캐나다의 회복프로그램과 유사 보호자에게 문제해결 시스템의 가용성에 대해 통지하여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지원
- 사전 낙인 방지를 위한 최소의 프로파일링 - 학생 정보는 최소화하여 남김
- 사전 낙인 방지를 위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별도 표시 하지 않음
- Bullying 지침 등에 대한 레벨을 학교 스텝 간 강도에 대한 이해와 레벨이 동일해야 함
- Bullying 레벨에 대한 인지가 동일해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음

□ 시사점

- 기본 지침만 제시, 각 학교에서는 더 강력한 계획을 만들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이론은 아동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함 (기존의 교육 방식을 바꿔야)
- 현대 학생들은 SNS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나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으므로 소통이 필요함 (연극, 체육 등 학교폭력 방지 및 해결을 위해 필요)
- restorative justice(정의적 회복) 장소 만들어 주기 : 학생 끼리, 리더 학생 참여하여 &네가 준 피해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도록 & 하는 기회 주기
- 부모와 소통하기 : 특히 칭찬 전화를 통해 학부모와 관계에서 신뢰를 높임, 수용적 자세 반드시 필요(효과 좋음)
- 학교폭력 예방정책 : 학교 구성원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함(교사 대상)

2. 기관 소개 _COPA(학교폭력관련 협의회)

- 자선 단체 자격을 갖춘 지방 비영리 단체
- 인정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품질의 폭행 방지 교육 자료를 개발, 통합 및 보급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강력하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개인 및 단체의 헌신을 유도
-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 분야에서 Franco-Ontarian 자원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지원
- 2000년 설립된 이래 150,000명 이상의 학생과 성인이 온타리오 주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
- 인권, 특히 아동의 권리와 차별과 학대에 취약한 사회단체의 인권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
- 공립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를 정부기관 및 교육단체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질의 및 면담 내용

- Bullying Online 웹사이트 운영 방식
- 가해자 프로그램 -> 피해자들의 감정 이입법 -> 가해자 낙인이 아닌 이해를 하고 변화를 유도
- 힘의 균형 논리 :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해자, 피해자 외에 방관자 및 목격자를 함께 Bullying 문제를 다뤄야 함
- 문제해결 접근방식 : 문제 확인, How 아이디어, 방안 평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선택, 아이가 계획 작성하도록 도움, 계획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온타리오 지역 학교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아동 폭행 방지 CAP(The Child Assault Prevention) 프로젝트
- 초등학생을 위한 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위한 폭행 방지 프로그램, 개인 ESPACE 프로젝트
- 중급 학생을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Courage : 학대 및 집단 따돌림 예방)

- 소녀들을 위한 폭행 방지 프로그램, 자기방어 과정
- 교육자를 위한 일일 괴롭힘 방지 워크숍 -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워크숍
- EMOTICHRONE : 감성 지능 (또는 EQ)을 구축하기 위해 간단하고 유쾌한 접근 방식
- 서식지 사이트 운영 : 부모와 보호자 및 학교를 위해 마련된 사이트로,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COPA의 혁신적인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음
- Safe @ School - 집단 따돌림 예방, 공평과 포용 교육 (동성애, 인종 차별, 성 차별에 중점), 부모와 보호자 대상 예방 파트너 전문 학습 모듈 제공
- 최신 연구 및 모범사례 기반
- Bully, Bullied 및 방관자와 함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자비로운 솔루션제공
- 모든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한 환경 합의사항 합의

□ 시사점 - 학교 전체 대상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지시가 아니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줌
- Storybook 활용 : 가해자에게 타인의 감정을 느끼도록 감정이입하도록 하며, 자신의 힘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도록 유도하기, 낙인효과를 방지하도록 이해해 주기(매우 성공적)
- 학교는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함에 합의하도록 전제한 후, 가해자가 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도록 함으로써 변화시키기 m 전문가 팀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진행 및 지원(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 Tools(도구) -&질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 (학생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묻고 대답 유도)
- 가해 학생 대상 후속적 연락(지속적 소통) : 다름(차이)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고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을 인지하도록 계속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후속 대책을 세움 포기하지 않고, 가해 학생을 믿어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효과적)
-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폭력이 학습되지 않도록 교사, 교장,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함.

기대효과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과 선생님, 더 나아가 고양시 주민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의 형식적인 영상 교육과는 차별화하여 학생 모두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참여형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여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교사들 또한 강사 수업을 듣고 학교폭력의 대응을 교육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정책이 고양시에서 먼저 정착하고 시행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선진 '청소년 연령 대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정책은 전국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선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정책제안
최보근, 김민재	고양시청소년의회 인지도 및 영향력 강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제안
김민제	고양형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김경환, 김경민	환경 실태 축제
김지연	학급자치활동 활성화
장예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 개정
차인수	고양시 도보 혼잡 관련 문제 개선

정책제안주제

고양시청소년의회 인지도·영향력 강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한 제안

발언신청의원

최보근, 김민재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v) 기타

제안내용 요약

- 고양시청소년의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강화한다.
-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한다.
- 청소년의회 활동에 더 다양한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의회 참여 가능 연령대를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지난 3대 의원 구성부터 관내 청소년 직선제로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로 현재까지 한 번도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지원자 미달로 인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고,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의회의 지원자 미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의 저조’라고 생각하였다. 공공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청소년의회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상된다.

청소년의회의 인지도에 대한 현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고양시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이거나, 청소년 재단 및 시정 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청소년(학생)들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의회가 고양시 산하의 여러 청소년 참여기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체에 대한 인지도와 의원 구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회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도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조례에 의거하여 출범한 이후 어느덧 4대째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한다.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참여기구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또한 청소년의회 구성원들도 의원으로서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실정에서 보다 진보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청소년의회의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청소년의 일상 생활이 즐거운 고양시’를 만드는 더 나은 청소년의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또한 고양시청소년재단과 고양시 측에서도 청소년의회에 더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1. 홍보 문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 대상자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지를 개설하여 의회 활동 및 의원 모집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와 함께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의거했을 때 가장 좋은 홍보 방안을 학교의 협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의 협조를 통해 청소년의회 의원 모집을 알리는 포스터나 안내장을 배부한다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 효능감 제고, 봉사시간 부여 등의 부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원 모집 과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청소년의회가 한 활동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정책이나, 성명서 등을 지금과 같이 SNS를 이용해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의회의 활동 과정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의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의)투표를 진행하거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인다면 많은 의원 수 모집과 함께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청소년의회 영향력이 높아져 의정 활동에 있어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요약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한다, 학교의 협조를 요청해 안내장이나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지속적인 캠페인 및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강화한다.

2.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차별성

현재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위원회와 의회의 역할에 있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제안하거나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정책을 제안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다 보니 참여위원회와 의회의 차별성이 없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지난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행정부’의 역할을 청소년의회는 ‘입법부’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으로 분리해 운영할 경우 두 기구가 서로를 보완하고 교류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행정부’의 역할을 청소년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더 다양한 활동과 정치적 참여 기회 제공

코로나 19라는 특수적 상황도 있지만, 지난 3대와 4대 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현재 청소년의회는 정말 짧은 기간의 시간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활동만을 집약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책 제안이 청소년의회의 주된 역할이지만, 오직 정책 제안 활동만을 진행하다 보니 '정책제안대회' 참가와 별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회를 비롯한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정치 의식을 함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제안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의회 구성원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과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더 큰 정치 효능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청소년의회 활동 중 정책 제안 외에도 다양한 기회(프로그램)를 제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령대 관련

현재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의원이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고등학생의 좁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연령 제한은 다양한 나이의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이 만 25세 미만까지 연령 제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만 25세 미만까지 청소년의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후기 청소년들의 의견까지 더 다양한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해 후기 청소년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여 더 나은 고양시청소년 의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다양한 청소년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기대효과

- 적극적 홍보로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 정족수 미달 현상을 방지해 처음으로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참여기구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청소년의회 의원에게 정치 효능감 제고와 더 큰 흥미 증진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 후기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 혁신을 이루어 청소년 참여기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언신청의원

김민제 의장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v)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조례제정
-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역할
- 참여예산 교육의 활성화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제3조 기능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아동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에 대한 제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참여기구로서 그리고 입법 부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주민발안제도, 지방 의회의 권한 등의 주민참여가 확대됩니다. 고양시는 21만 명이라는 다양한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청소년 정책,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고양특례시에 맞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현재 수원시, 시흥시와 같은 지자체와 미국 보스턴 시에서는 'Youth Lead the Change 프로젝트'와 같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대상은 고양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때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사업, 정책제안 사항을 고양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고 이를 청소년 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정책 구체화 작업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달과 같은 행사에서 현장투표, 청소년참여 부스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예산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정책제안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참여예산위원, 시청 관계자, 청소년 투표를 합산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청소년참여예산제 또한 제안내용을 구분하여 청소년 안전, 문화예술, 교육 복지과 같은 사업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

고양시는 지자체 중에서도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 정책제안대회, 청소년의회와 같은 참여기구가 잘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의 적극행정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과 더불어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를 통해 아동 친화도시 고양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책제안주제

환경 실태 축제

발언신청의원

김경환, 김경민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청소년 교육 (v)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환경 관련 축제를 통해서 환경 실태를 알리자
- 환경을 좀 더 알리자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가 파악했으면 하는 마음에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만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게끔 하기 위한 축제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환경 관련 문화축제 장소 선정: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외가 유력 그러나 실내 강당도 사용할 수도 있다. 축제 세부내용 정리: 환경오염 실태 영상 시청(대기, 해양 오염 등 여러 오염관련 영상을 유튜브, 이비에스 등의 간단한 영상을 시청한다.)

환경 물품 제작(방역, 위생이 중요한 만큼 비누, 대나무 칫솔), 비대면 일시 제작 키트를 제작해서 배송예정.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버리고 줍는 대회 활동 예정(비대면 일시 약간 등)

청소년 친환경 작품 전시회, 경시대회(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기대효과

10세부터 70세까지 우리 환경의 문제점을 느끼고 미래세대, 코로나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살고 이 환경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인식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발언신청의원

김지연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v)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확대해주세요
- 학급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해 학급 운영비 증가시켜주세요
- 학급 자치활동에 대한 학급 선생님의 폭넓은 지도와 교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영상 교육 의무화 또는 권고해주세요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현재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라는 인수 공통감염병이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였고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를 돌아보니 아쉬우면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적었으며,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러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자주 못 보기도 하고, 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학급 자치활동 시간은 1달에 1번 정도 있으며, 학급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학급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경우 몇몇 학생들만 참여하고, 학원 숙제를 하거나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급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학급자치활동을 계획할 기회는 적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급자치 시간이 활성화되고, 그 시간이 증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 활동 중심이던 학생 자치활동의 온라인 운영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학생 자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자치회 구성, 학생자치회 부서 활동을 카드 뉴스나 영상 등으로 제작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학급자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 학급의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활성화되지 못하여 대면 수업일 경우 자습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급자치 시간이 활성화된 학급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즉, 학생 자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목적] 학생들의 시민의식 향상과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젝트명] 다원이 되어 나르샤

▶모두 다 원하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다원'과 비상하다, 날아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나르샤'를 합쳐 '모두 다 원하는 사람이 되어 날아오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급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며 발전하여 학생 개개인이 모두가 다 원하는 사람이 되어 날아오르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제안 내용]

·학급 자치활동 시간 확대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1달의 2번(or 1달에 2시간 이상)으로 증가시켜주세요.

·학급 운영비 증가

▶학급 자치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선 경비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급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 학급 내 부서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학급운영비가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하여서 학급 운영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학급 자치활동에 대한 학급 선생님의 폭넓은 지도와 교육 활성화

▶학급 선생님들이 학급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학생들에게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학생들이 학급 자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급별 학급 내 부서 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학급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치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학급 선생님의 학급 자치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급 선생님들이 학급 자치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학급 자치활동 이해 관련 영상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해주세요.

■ 기대효과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 학생들이 예비 시민으로서 성장할수록 도와줄 것이며,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학생들 개인이 스스로 만든 활동으로 자신의 반을 구성함에 따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로나 19와 학업 등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될 것이며, 학업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학교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시 학급 자치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에 한 발자국 내디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코로나 19 때문에 친해지지 못했던 학우들과 직접 의견을 나눔으로써 학급 친구들 간에 친밀감이 형성될 것입니다.
- 학생들이 학급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 학생 자치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 학급별 학급 내 부서 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제안주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 개정

발언신청의원

장예원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v) 청소년인권

()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가진 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 해당 위원회를 '고양시 학생인권 증진 위원회(미정)'라고 부르며 개정되어야 할 생활인권규정을 가진 학교에 개정을 권고한다.
- 이로 인해 학생 인권의 발전과 도약, 실질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이 예상된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상위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의 많은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내용이 이에 위반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또는 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심각한 문제 상황을 인식했고, 나아가 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법률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던 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라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생활인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과 학생들의 인권 증진 측면에서 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지 않았던 점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으나 이것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학생 인권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고치고, 조례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관 또는 이에 대해 무지한 교육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방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한 교육자가 학생 인권의 수준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아무리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이다. 교사의 경우 각 학교별 생활인권부 등의 부서가 존재해, 상시로 생활인권규정의 실현 및 유지를 위해 힘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가 생활인권규정을 절대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한다면 규정의 내용 중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양시 모 학교 생활인권 규정과 조례 내용 비교]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발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가’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일부 발체 / 제29조【두발】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펌이나 염색 등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나’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일부 발체 / 제7조【두발】본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두발 상태를 허용한다.

1. 염색이나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2. 남 · 여학생 모두 본교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두발 모양을 권장한다.

위 사항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에 제한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구해 일반위원(교육청 관계자 또는 교사 또는 장학사 등)과 고양시 대표 학생위원, 학부모위원을 두고, 각 지역구 별로 나누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을 검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고양시 학생인권 증진 위원회’(이하 ‘학증위’)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해당 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학증위의 위원은 일반위원(교사 또는 장학사),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조직된다. 일반 위원은 전체 위원회의 2/3 이하, 학생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회의 1/6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자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각 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위반되는지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학증위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고양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위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인권 교육 시 경기도학생인권 조례의 내용과 재학 중인 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이 부합하는 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고양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한다면 학생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학생 인권을 증진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킴으로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이로서 그동안 침해되어왔던, 또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했던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학생들을 존중함으로써 청소년기 건강한 교우 관계 및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2.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학생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를 유지하며, 그동안은 각 학교의 교장의 재량대로 바꿀 수 있는 생활인권규정에 명확히 지켜야 할 선이 생기며 교사 또는 학부모를 주체로 하여 바뀌었던 규정이 학생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3. 고양시의 학생인권 보호 의식이 증대하여 위상이 높아진다.

고양시 전체에서 해당 사항을 실현하게 된다면 고양시의 학생 인권 보호 의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지며, 고양시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학생들이 형성하는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다.

발언신청의원

차인수

정책제안분야

(관련된 영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청소년 교육 () 청소년문화 () 청소년인권

(v) 청소년 안전 () 기타

제안내용 요약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공간적 제한의 필요
- 불법 쓰레기들의 무방비한 방치 방지를 위한 제제 조치와 쓰레기 투기 구역 증가 및 제정의 필요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도로 교통법 조항들과 규칙만으로는 늘어난 운행량과 무방비한 방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 버려지고, 쌓이기까지 하며 도보의 제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혼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 운전자 안전(*여기서 말하는 운전자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를 뜻합니다.) 및 보행자 안전 문제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그 대상이 아직 어린 청소년들과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도보를 확실히 구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제안하는 정책:

1. 고양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위한 공용 주차 공간 마련/위치 알림과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방법 홍보/교육.
2. 고양시 쓰레기 지정 구역의 확대 및 공용 쓰레기통의 추가적인 설치.

실행방법:

- 1.
- 1) 공용 주차 공간은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목적지 위주로 (마트나 학원이 몰려있는 상가, 단지 입구) 마련하도록 하며 마련 후, 위치 알림(홍보)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눈에 띄는 현수막이나 표지판 혹은 인터넷 지도를 만듦으로써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합니다.

2) 안전모 착용, 전조등, 후미등과 같은 필수 안전용품, 제한 속도/이동금지 구역들에 관한 규칙들(도로교통법 제 13조 참고)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 혹은 자체적인 캠페인 활동들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등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간 안전한 교통환경에 조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 1) 현재 지정된 쓰레기통의 위치와 쓰레기 투기 가능 지역 외에 쓰레기통이 불법적으로 많이 투기되는 곳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장소들을 위주로 쓰레기 처리 구역에 쓰레기통을 추가적으로 지정합니다.
- 2) [폐기물관리법 제 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쓰레기통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합니다.

기대효과

1.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이동 시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인형 이동 수단을 거치하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써 도보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전보다 이동 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3.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을 더욱 확보함으로써 도보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전보다 이동 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4. 앞서 언급한 공간을 마련한 후 잘 인식할 수 있게 위치를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 존중 | 청소년 행복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청소년의회	<p>홈페이지 ▶ https://www.gcyf.or.kr/vote/ 즐겨찾기 등록</p> <p>facebook ▶ @goyangyouthassembly</p>
고양시청소년재단	<p>홈페이지 ▶ https://www.gcyf.or.kr/ 즐겨찾기 등록</p> <p>facebook ▶ @gcyouthf YouTube ▶ 고양시청소년재단</p> <p>KakaoTalk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검색 후 친구추가</p>